

업계동향

LG電線(株), 低溫 수축 튜브 개발

LG電線(株)(代表: 權炆久)는 최근 국내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에 수축하는 저온 수축튜브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수축튜브는 전자 부품에서 커넥터, 전선 등의 단말부부분이나 연결부위를 보호하는 중간 가공재로 기존 튜브의 경우 90℃부터 수축을 시작해 수축 시간연장에 따른 부품 가공업체(하네스업체)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LG전선이 1년동안 2억원을 들여 개발에 성공한 저온 수축튜브는 전기적, 물리적 특성과 수축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축 시작 온도는 60℃로 낮춰, 동급 수축튜브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수축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또 내열 특성이 우수해 섭씨

125도에서 계속해서 사용해도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y 미국 보험업협회)이 환경시험 등을 거쳐 품질을 인증해 국제적인 신뢰도를 검증 받았다고 LG측은 밝혔다.

LG전선은 저온 수축튜브가 전자 부품의 가공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전자산업분야의 생산성을 크게 높여 기존의 열수축튜브도 점차 저온형으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자 부품 세트 메이커들이 밀집해 있는 동남아와 유럽 등지를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LG전선은 저온 수축튜브가 10개의 표준 색상 외에도 전자 제품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색상을 갖출 수 있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東佑電機工業(株), ISO 9002 인증 획득

東佑電機工業(株)(代表: 金沿洙)가 최근 주력생산품인 MOF(계기용변압변류기), CT(변류기), PT(계기용변압기)에 대해 한국

표준협회 한국품질인증원으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이번 ISO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으

로 제품 및 서비스의 질 제고는 물론 신제품 개발 및 수출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89년 설립돼 동종 업계에서는 후발 주자에 속하는 동우전기는 변성기기 및 에폭시 절연물 제조전문업체로서 특히 에폭시 몰드형 변성기기에서는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는 업체이다.

한편 이번 동우전기의 ISO 인증으로 국내 전체 MOF 제조업체 15개사 가운데 ISO 인증 획득업체는 동우전기를 비롯해 삼능전기(주), 삼능전기제작소, 삼흥중전기공업, 영화산업전기제작소, 중원전기공업(가나다순) 등 6개사로 늘어났다.

三興重電機器工業(株), ISO 9001 인증 획득

三興重電機器工業(株)(代表:趙亨紀) 천안공장은 최근 한국능률협회 한국품질인증원으로부터 피뢰기, COS, 파워퓨즈 등 전 생산품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획득,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배전기자재 종합제조업체인 삼흥은 천안공장의 이번 ISO 9001 인증 획득은 울들어 폴리머피뢰기 등 신제품 생산라인을 완비해 새

로운 주력품목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시점에서 달성한 것으로 대고객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사는 제1공장인 이천공장이 지난 '96년 10월 MOF등 변성기기, 고장구분개폐기, 가스개폐기 등 전 생산품목에 대해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